

# 영광군, 고추 이식 기계화 연시회 개최

### 농촌 기술혁신·인력 부족난 해결 기계화 확산 노력 “농업 생산성 높이며 안정적 수익 얻을 수 있게 될 것”



영광군은 지난 5일 고추 이식 기계화 연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분야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농촌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열렸다.

연시회에서는 새로운 고추 이식 기계화 기술들과 이를 활용한 장비들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고추 이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연시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수용하며 이를 농업 생산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업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연시회를 주최한 영광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지는 “앞으로도 농업용 기계화의 적극적인 보급과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농부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2023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 청년농업인·친환경농업 2개 과정

무안군은 지난 3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입학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무안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학사 운영 안내를 비롯해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바람’ 강행원 대표와 22년도 청년농업전문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스톱’ 정소혜 대표의 사례 특강이 이어져 입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청년 창업 설계 과정을 다루는 청년농업인반과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유용미생물 제조 실습 등의 친환경농업반, 2과정으로 운영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과정별 83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입학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역량 강화와 농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목포시 “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 사립유치원에 아침과 저녁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목포시가 5월부터 관내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원하며, 매년 1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총 17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아침·저녁돌봄교실 운영 지원비 300만원씩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유치원의 실정과 돌봄 수요의 운영 여부를 파악해 이른 아침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침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저녁돌봄 교실도 지원도 이어간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원아 인원의 적정범위에 따라 돌봄교사의 수당, 식비와 유치원 유아들의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라남도교육청 및 목포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돌봄수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돌봄제공시간 등의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유치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전문물리치료사 있는 영암군 서호보건지소로 오세요”

### 전남도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설치

영암군 서호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전문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어르신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으로 서호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된 것은 지난달 26일.

영암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의 어르신이 다수인 서호면 주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물리치료실과 전문치료사를 유지했다.

물리치료실이 생기자 보건지소에 있던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허리벨트마사지기에

전문장비인 간섭전류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등이 더해졌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새 물리치료실을 찾으면 이 장비와 전문물리치료사의 손길로 맞춤형 통증·관절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물리치료실 설치와 전문물리치료사 고용으로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서호면 어르신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는 물론이고 양·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홍보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협력’ 업무협약

신안군은 지난 2일 경남정보대학교 민석기명관에서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와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해상풍력 기술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에 이바지하는 등 유기적인 과학 협력체계를



통한 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고정식 해상풍력

8.2GW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잠재량 10GW 추정하고 있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 함평군,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장 운영

함평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4월 군에 따르면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영농철을 대비해 오는 7월 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을 연장 운영한다.

현재 함평군은 농업기술센터(본점), 동부지점(해보면), 서부지점(손불면) 등 3곳에서 풍파종기, 퇴비살포기 등 100종 456대의 농기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임대사업소 3곳 모두 평일 개소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로 한 시간 앞당겨 운영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본점에 한해 주말인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 가능한다.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000원~151,000원이며, 최대 3일간 임대 가능하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061-320-2502)로 전화 문의를 통해 사전에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장 운영을 통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